

주요 내용(2019년 06-10월)

2019. 10. 30

1. 메인 주제 종합

(일반 사회 통계, 2019 대한민국 트렌드, 기독교 통계)

2. 최근 언론 보도 통계 관련 종합

3. 칼럼

- 1) '편 가르기'를 넘어 통합된 사회로
- 2) '목회자와 평신도', 인식의 갭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주간리포트 〈넘버즈〉 특별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 설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각 주제별 통계 자료와 최근 언론보도 통계 관련 기사들을 주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9호까지 ‘일반사회 통계’, ‘기독교 통계’, ‘대한민국 트렌드’, ‘다음세대 통계’로 구분하여 매주 편집 발행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호는 그동안의 주간 리포트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종합편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 통계는 그동안 제공한 기사 수가 총 129개나 되었는데 그 중 놓치면 안될 주요 기사를 선별해서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칼럼과, 한국교회 내 목회자와 평신도 간 인식의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칼럼도 함께 실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메인 주제 종합편에서 자료 출처는 자료 제공 기관만 제시했음(자세한 출처 내용은 해당호에 기재되어 있음)
- 자료 중 URL을 클릭하면 해당 매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일반사회 통계

1 인구 절벽(제 1호)

-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0.98명, 2018년), 서울은 0.76명(통계청)
 - OECD 평균 출산율 : 1.68명(2016년 기준)
- 미혼남여 결혼 인식(보건사회연구원) '결혼할 의향 있다'
 - 미혼남자 : 2015년 75% → 2018년 59%
 - 미혼여자 : 2015년 65% → 2018년 45%
- 인구구조 변화
 - 14세 이하 : 1960년 42% → 1990년 26% → 2020년 12% → 2050년 9%
 - 65세 이상 : 1960년 3% → 1990년 5% → 2020년 16% → 2050년 40%

2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제 2호)

-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 OECD 하위권(35개국 중 23위) : 27% (OECD 평균 36%)
- OECD 국가 중 사법제도 신뢰도 최하위권(42개국 중 39위) : 27% (OECD 평균 54%)
- 주요 기관별 국민 신뢰도 : 50% 이하 수준 (종교기관 43%, 국회 15%)(한국행정연구원)
사회갈등지수 : OECD 회원국 중 37개국 중 32위 (하위권)
- 한국사회의 갈등 정도(한국행정연구원)
 - 보수와 진보 갈등 '심하다' 87%
 - 빈부 갈등 '심하다' : 82%
 - 한국의 갈등관리 비용 : 연간 최대 246조원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한국행정연구원)
 - 정부(62%)가 가장 높고 종교기관(4%)은 제시된 9개 집단 중 최하위권임
이는 우리 국민이 종교의 본질적 역할 중 하나인 사회통합기능에 대해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임

3 모바일 시대가 온다(제 3호)

-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이용률 급증(한국언론진흥재단)
 - 2018년 기준 이용률 : 모바일 인터넷 82%, 라디오 21%, 종이신문 18%
- 개신교인 인터넷/스마트폰으로 평소 예배나 설교 들은 경험(한국합)
 - 2012년 28% → 2017년 44%
- 가나안성도 26%, 향후 온라인/모바일 예배 의향 보임(한국합)
- 비개신교인 기독교방송 또는 인터넷 통한 예배/선교 프로그램 접촉도, 5년간 크게 증가(한국합) (2012년 10% → 2017년 30%)

4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 (알코올 관련 사망자 2017년 4,809명)(WHO)
- 한국의 술 소비,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
 - 한국의 연간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은 10.2리터(세계평균 6.4리터)인데, 이는 1주일에 전 국민이 매주 소주 5.5병(또는 맥주 13캔)을 1년 간 꼬박 마시는 양임
 - 청소년 음주율 : 남고생 27%, 여고생 22%
- 한국사회는 술취함에 관용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음(보건복지부, 한국 갤럽) (술은 취해도 된다 36%, 낫술해도 된다 31%, 술을 줄일 생각을 한적 없다 57%)
 - 개신교인의 4명 중 3명(75%), ‘음주는 해도 무방하다’는 수용태도를 보임
- 음주 폐해(도로교통공단, 보건복지부)
 -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 운전 비율 14%, 강력 흉악 범죄 음주 상태 30%, 자살, 자해 환자 중 음주 상태 42%

5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 받고 있다(제 15호)

- 한국인 행복지수 : 10점 만점 5.9점으로 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속함 (OECD 평균 : 6.7)(SDND)
 - 주관적 행복도(2018년) : 100점 만점 56점(동아일보)
 - 60대 이상 고령층 남성이 전 연령층 중에서 행복도 가장 낮음
- 행복 취약층(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은 전 국민의 23%임
- 개인의 행복도 소득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 받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 높아짐)
- 스마트폰 적게 보고, 웃는 회수 많고, 가족 수 많을수록 행복도 올라감

6 한국인 1일 37명 자살한다(제 16호)

- 한국의 자살률, OECD 1위(2018년 인구 10만명당 24.7명)(통계청)
 - 2018년 자살자 13,670명으로 하루 37명 꼴임
 - 사망 원인 1위는 전체적으로 암이지만, 10~30대 연령층은 1위가 자살임
 - 20대 연령층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절반(47%)이 자살임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인구10만명당)이 급격히 올라감
(남자의 경우, 50대 51명 --> 60대 53명 --> 70대 83명 --> 80대이상 139명)
- 청소년 자살률, 1년 사이 22% 증가(2017년 4.7명 --> 2018년 5.8명)(보건복지부)
 - 청소년 자살 경험(자살생각 경험율 : 12%, 자살계획률 4%, 자살시도 경험율 3%)
 - 청소년 죽고 싶은 이유, '학교성적'(41%)이 가장 높음
- 자살 유가족 :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 8배 높음(보건복지부)
 - (자살위험율 : 일반인 대비 전체평균 8배,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 16배, 자살자가 아내인 경우 46배)
 - 자살 유가족의 사별 후 변화 : 우울함 75%, 자살 생각 58%

7 장애인, 문화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제 17, 18호)

- 지난 1주간 문화레저활동 중 봉사/종교활동(18%)를 제외한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 등의 문화활동 비율이 10% 미만으로 거의 못하고 있음(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집 밖 활동 '불편하다' 47%
- 장애인 30%, 이들에 한 번 이하로 외출함
- 장애인 80%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 있다'고 생각함장애인 40%, 월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임
-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이동, 보행,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등의 순
- 장애인 고용 관련, 실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장애인에 인식이 훨씬 긍정적임
 - 실제 일을 시켜보니 기대보다 생산성, 업무능력이 높다고 평가함(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등록 장애인 수 : 약 255만명으로 총 인구 대비 4.9%임(보건복지부)

기독교 통계

1 한국인의 종교 변화(제 1호)

- 2015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통계청)
 - 종교인 44%, 무종교인 56%
 - 개신교인 20%, 불교인 16%, 카톨릭 8%
- 교회학교 학생 감소 : 지난 10년간 30~40% 감소(예장 통합)
 - 유치부 -33%, 소년부 -44%, 초등부 -40%, 중등부 -47%, 고등부 -35%

2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제 2호)

- 대학생 종교현황/분포(한목협)
 - 2017년 대학생 중 종교인 비율 : 32%
 - 2017년 개신교 대학생 비율 : 15%
- 대학생, 개신교 이탈률 5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
 - 비개신교학생 중 교회를 다닌 경험 '있다' : 2012년 14% --> 2017년 30%
- 개신교 이탈 이유 : 개인적 이유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
- 개신교 대학생, 이단 접촉 경험은 42%, 접촉 이단은 신천지(64%)가 가장 많음
- 대학생의 동성애 인식 '인정해야 한다' : 개신교학생 41%, 비개신교학생 70%

3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간다(제 2호)

- 가나안성도 2012년 11%에서 2017년 23%로 크게 증가(한목협)
 - 개신교인 1000만명으로 간주할 경우 가나안성도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
- 40대, 남자에게서 가나안 성도 비율 높음
- 가나안성도 대부분(90%)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함(실천신대,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 향후 교회 출석 의향률 : 56%
 - 향후 출석하고 싶은 교회 :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46%)

대한민국 트렌드

1

나홀로 라이프, “나는 혼자여도 좋다”(제 4호)

- ‘현대인은 혼자 살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40%), ‘알아도 누가 사는지 정도만 안다’(91%)
- ‘혼자여도 괜찮다’, ‘혼자서도 잘한다’
 -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전반적으로 느낌이 긍정적이다’ 62%
 -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80%
 - 현대 트렌드는 내 주변 타인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일상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1인 체제’의 시대임

2

현대인, 인간 관계를 축소하고 있다(제 14호)

- 인간관계 확장 노력하지 않는다
 -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그렇다’ 34%, ‘아니다’ 50%
 - 나는 가끔씩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다’ 58%, ‘아니다’ 29%
- 인간관계의 대상,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다
 - ‘궁금한게 있으면 옆사람보다 스마트폰에 물어본다’ 86%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족, 친구와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다’ 67%
- 사람에게는 인정욕구가 있으나, 높은 인정욕구에 비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다
 - ‘나는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81%
 -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알까봐 두려울 때가 있다’ 38%
 - ‘나는 가끔 모르는 타인을 좀 더 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 48%

3

유튜브 홀릭(제 9호)

- 유튜브 대세를 타다
 - 동영상 시청시 유튜브 이용율 : 10대 99%, 20대 91%, 30대 87%, 40대 85%, 50대 이상 89%
- 유튜브의 힘, 다양한 경험
 - 평소 유튜브 시청하는 동영상, 음악 58%, 연예 49%, 스포츠 32, 학습교육 32%
- 유튜브의 힘, 새로움
 - 1분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분량 : 약 500시간 분량, 1일 업로드되는 동영상 시청 소요일 | 82일)
- 유튜브의 힘, 소통
 - ‘유튜브는 이용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한다’ 67%

*상기 자료의 출처 : 트렌드모니터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주간 리포트 〈넘버즈〉 “1-19호”,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파트를 섹션별로 나누어 종합하였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1 인구

[30년 뒤 일할 사람 32% 사라져... 1명당 노인 0.7명 부양해야](#)

서울신문 _ 2019. 06. 27

“오는 2047년 부산과 대구, 울산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40% 이상...”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발표\(본 보고서 11p 관련 기사\)](#)

연합뉴스 _ 2019.08.29.

“4살 이하 인구 200만명 이하로 추락...70세 이상은 500만 명 돌파”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한국](#)

중앙일보 _ 2019.09.03

“2067년 고령 인구 47%... 일하는 한 명이 노인 한 명 부양”

2 사회

[여전히 높은 유리 천장](#)

세계일보 _ 2019.10.16

“공직사회 여전히 ‘유리천장’.. 5곳 중 1곳 여성 고위직 ‘0’”

[능력보다 도덕성! \(사회적 쟁점 국민의식조사\)](#)

한겨레신문 _ 2019.10.02

“고위공직자, 도덕성 보다 능력’...국민 69%는 동의 안했다”

[학벌과 성공에 대한 인식](#)

세계일보 _ 2019.07.22

“성인 56%, ‘성공하려면 학벌 좋아야’”

[교정 시설 수감자 실태](#)

세계일보 _ 2019.08.24.

“열악한 환경에 수용자 넘쳐... 수감중 사망 크게 늘었다”

[매년 1978명, 스스로 목숨 끊는다](#)

세계일보 _ 2019.09.09

“서울서만 5년간 9889명 ‘극단 선택’”

[학벌주의 등 교육현실에 대한 여론조사](#)

에듀프레스, 2019.02.04.

“SKY캐슬 무너지지 않을 것’.. 자녀교육 성공은 좋은 직장”

3
가정

전통적인 부부 역할 인식 변화

조선일보 _ 2019.07.05

“남편 돈벌고 아내 육아’ 국민 70% “동의 안해”

가족 다양성 수용도 상승

중앙일보 _ 2019.09.29

“국민 4명 중 3명 ‘혼외출생자’ 용어 폐기 찬성”

부부 경제권에 대한 여론조사

조선일보 _ 2019.08.10

“가정 주식회사’에 눈 뜬 2030, 경제권 밀당도 심해진다”

남성 육아 통계

한국일보 _ 2019.10.19

“아빠 육아 어디까지 왔나”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 역할 중요

한겨레 _ 2019.08.18.

“스마트폰, 2살 지나면 조금씩 늘리되 하루 2시간 넘지 말아야”

4
직장

소통하고 싶으면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매일경제 _ 2019.07.18

“이메일로 대화하시죠?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오늘부터 회사 가시면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직장인 중 룡런의 비결은

동아일보 _ 2019.07.31

“가르치는 선배 vs 배우는 선배, 누가 룡런할까”

직장인 대출액, 40대 연령대가 가장 많아

연합뉴스 _ 2019.08.12

“월급쟁이 평균 대출액 4천76만원…40대, 6천만 원 육박”

직장 만족도와 출퇴근 시간 관계

매일경제 _ 2019.08.04

“출퇴근 편해야 직장 만족도 높아…평균 30분~1시간 소요”

직장인 ‘네, 냅, 냅’ 여론조사(3,266명)

조선일보 _ 2019.10.05

“네’ ‘넵’ ‘넵’ 사이… 의욕충만인가 립서비스인가”

직장인 근로 시간 분석

조선일보 _ 2019.10.07

“빅데이터로 증명된 ‘부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5
개인

잔소리(반복 강조)의 긍정 효과

중앙일보 _ 2019.07.11

“‘병원가라’ ‘운동해라’ 보건소·의사 잔소리가 2400명 살렸다”

이어폰이 삶에 미치는 영향(한국인 6,041명 조사)

조선일보 _ 2019.08.24.

“나의 ‘고막 절친’, 너 없인 하루도 버틸 수 없어”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최근 2년간 공연관람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일경제 _ 2019.08.29.

“‘주 52 시간’ 1년 ... 낮 공연 관객 22% 늘었다”

6
다음
세대

수험생 스트레스, 투통, 기능성 소화 불량, 수면 장애 순

중앙일보 _ 2019.08.17

“잠 쫓으려 커피 먹는 수험생 ‘카페인 두통’ 시달린다”

교육부, 청소년 자살자 특성 분석

세계일보 _ 2019.10.14.

“극단적 선택’ 아이들은 대부분 평범했다”

10대 고혈압 환자 4년새 50% ↑

동아일보 _ 2019.10.14

“청소년 술·담배 더 늘어.. 고혈압·성조숙증 환자 급증”

청소년 비만을 급등

머니투데이 _ 2019.07.21

“똥똥해지는 청소년들’서울시 청소년 비만을 10년새 2배 급증”

7
기독교

미국 교회 성도 성경읽기

국민일보 _ 2019.07.05

“매일 성경 읽는 미국교회 성도 32%” (한국 교회 성도 ‘매일 성경 읽는다’: 24%, G&M글로벌문화재단, 2017.04)

미국 넌크리스천 젊은층(밀레니얼 세대), 영적 관심도 성인보다 높아

바나 그룹(Barna Group) 리서치 _ 2019.5.28

“나는 기독교가 내 삶에 미치는 의미를 더 알고 싶다”(밀레니얼 36%, 성인 16%)

2019년 주요교단 신대원 충원율 현황

기독교연합신문(아이굿뉴스) _ 2019.08.30

“신대원 신입생 충원율, ‘개선’ VS ‘추락’ 엇갈려”

북한 교회 예배, 유튜브 시청

국민일보 _ 2019.09.16

“평양 봉수교회 예배 모습 유튜브로 보세요”

8
세계

전 지구 기후 보고서가 보내는 경고 신호

한겨레신문 _ 2019.09.23

“세계기상기구 ‘최근 5년 역사상 가장 더워... 대재앙 우려’”

미국, 신뢰도 조사 결과

이데일리 _ 2019.09.13

“미국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은 ‘의학 과학자’”

트럼프의 거짓말

조선일보 _ 2019.08.13.

“WP ‘트럼프, 취임 이래 1만2000번 거짓말...하루평균 13번꼴’”

중국 관광객 추이

머니투데이 _ 2019.10.15

“中 관광객이 돌아온다... 사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

유엔의 세계 경제 예상도

연합뉴스 _ 2019.09.29

“대외 악재 속 ‘사면초가’ 韓경제...유엔 ‘세계성장률 10년래 최저’”

9
기타

재미있는 정당 지지율 차이

경향신문 _ 2019.07.27

“50대 여성은 50대 남성과 왜 정치적 성향이 다를까”

IMF가 본 한국

한국경제 _ 2019.08.11

“한국 구매력 평가 1인당 GDP 2023년에 일본 추월 전망”

이슈 큐레이션

스토리 기사

[美 미시간대, 40개국 정직성 실험](#)

동아일보 _ 2019.06.21

“누구나 한 번쯤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지갑 속 현금을 보고 나쁜 유혹에...”

[63년째 양심 지키는 무감독 시험](#)

문화일보 _ 2019.07.05

“제물포高 ‘무감독시험’ 63년째... ‘양심 1점이 부정 100점보다 명예”

[매일유업 특수 분유를 만드는 이유](#)

중앙일보 _ 2019.07.25

“단 12명 위해 공장 전체 멈췄다...이상한 분유회사, 이런 게 애국”

[흑인 살인자 용서, 미국을 울리다](#)

중앙일보 _ 2019.10.3

“형 싸 죽인 백인 女경찰 꺼안았다...美 울린 10대 흑인의 용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이야기 _ 에티오피아 총리, 복음으로 국가 변화](#)

국민일보 _ 2019.10.16

“형 싸 죽인 백인 女경찰 꺼안았다...美 울린 10대 흑인의 용서”

[고려 대학생 가슴 울린 종강사](#)

조선일보 _ 2019.06.18

“잠시 하숙집 점심 먹고 온 듯한데 30년... 흘러가는 시간 못잡으면 어느날 후회”

[기버\(Giver\)로 살기](#)

경향신문 _ 2019. 05.15

“호구가 이긴다”

[여론조사 보도, 유의할 점](#)

머니투데이 _ 2019.07.05

“허명회 교수,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한겨레신문 _ 2019.08.06

“인종주의 확산, 어디까지?”

[리더십 이야기](#)

매일경제 _ 2019.08.22.

“[CEO 심리학] 조직내 문제 바로 잡을땐 공격적 직원에 역할줘야”

[노년의 축복](#)

중앙선데이 _ 2019.08.31.

“나이들은 내 친구, 안티에이징만 외치지 말라”

이슈 기사

Numbers 칼럼

‘편 가르기’를 넘어 통합된 사회로

박준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918년에 성립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의회민주주의 체제 위에 세계 최초로 여성을 포함한 보통 선거권 제도를 도입했고 현대 복지국가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바이마르공화국은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세리 버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바이마르공화국 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그들은 사회주의, 카톨릭, 개신교 등 이념과 종교에 따라 합창단, 조류 관찰 모임 등 친목·여가 모임을 따로따로 결성했다고 한다. 바이마르공화국의 대의 민주제는 이러한 사회적 균열을 완화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는 15년간 14명의 수상이 선출되었을 정도로 매우 불안했다. 대공황이 닥치자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독일 국민은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할 카리스마적 리더를 원했고, 우리가 잘 알듯이 1933년 선거에서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당을 지지함으로써 나치 정부를 합법적으로 탄생시켰다.

분열된 사회에서는 아무리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사회 통합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 통합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사회 통합 수준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정도와 가치관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간의 신뢰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한국에서는 26.5%에 불과했지만, 네덜란드 66.1%, 스웨덴 60.1%, 독일 44.6%였다.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일본이 35.9%, 인종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이 34.8%로 비교적 낮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OECD의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24%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해 OECD 35개국 중 33위였다. 1위는 80%를 기록한 스위스였다. 국민들의 가치관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및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비교 대상 3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국민들의 진보-보수 이념양극화 지수는 35개국 중 21위로 중간 정도에 그쳤다(각 나라의 ‘선거체제의 비교연구’ 자료를 이용해 산출함).

최근 서울 도심에서 매주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규모 집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이념 양극화 수준이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분석한 스탠포드 대학의 모리스 피오리나 교수는 양극화되어 가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따라 미국의 유권자들이 정렬(sorting)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정당의 이념적 좌표가 양극화되면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 지도층이 만든 진영 프레임을 따라 팔로워(follower)들이 정렬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회 통합이 잘 되려면 국가와 시민을 매개하는 정당, 미디어, 사회단체 등 ‘중간조직(intermediaries)’의 갈등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팔로워들을 진영 논리로 정렬하지 않고 진영간 소통을 유도하는 교회와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Numbers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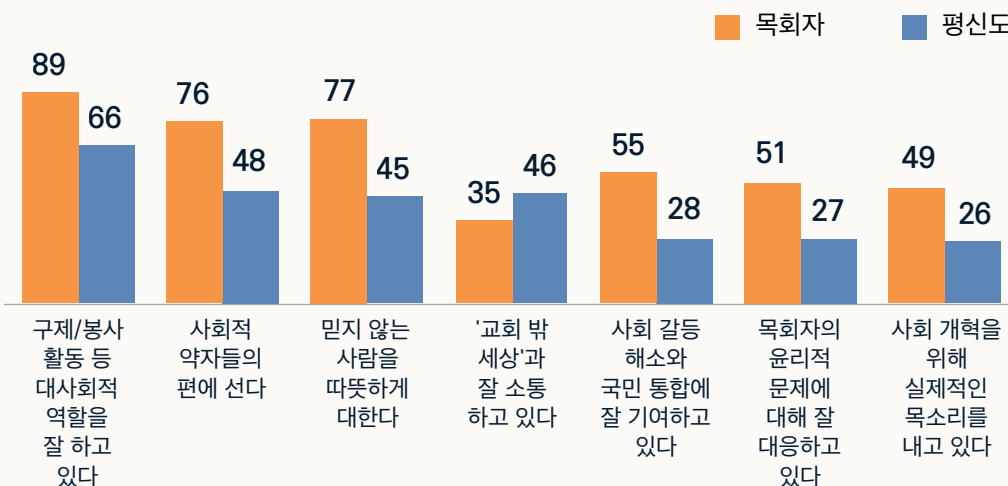
‘목사와 평신도’, 인식의 갭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직에서 리더가 지향하는 방향점과 팔로워가 지향하는 방향점이 다르다면 그 조직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리더 따로 팔로워 따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은 리더와 팔로워 간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두 그룹간의 인식의 갭을 줄여나간다. 한국 교회에는 수만 개의 지역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라는 틀 안에서 리더인 목사와 팔로워인 평신도 간의 나뉠의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어떤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간에 생각의 차이를 줄여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두 그룹간의 생각의 차이가 심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목사와 평신도간에 생각이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또 무엇인지 짚어보는 게 의미있을 것 같아 이와 관련된 통계 수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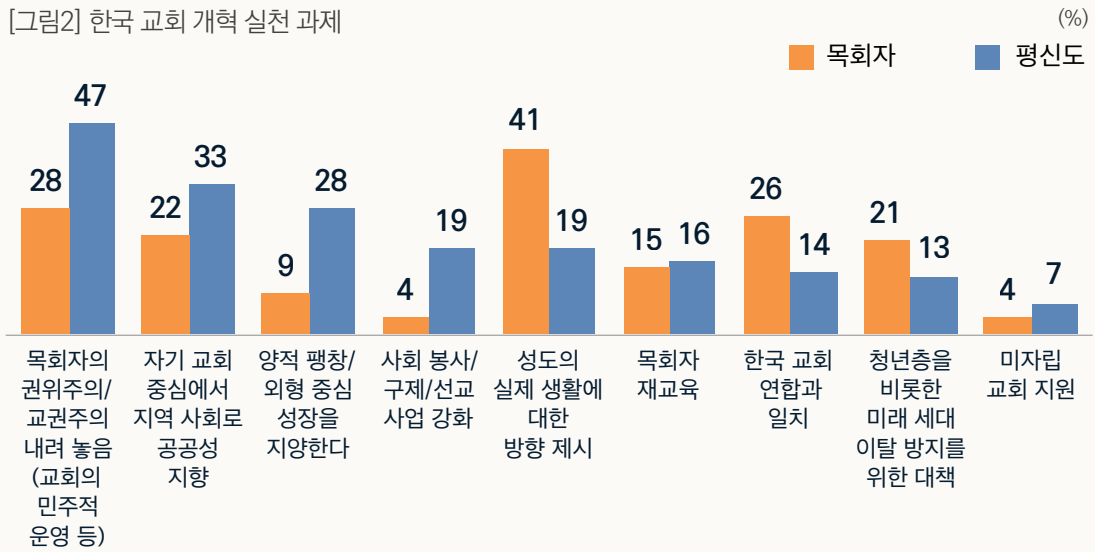
2017년 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국민일보사에서 한국 교회 개혁과 관련된 조사를 평신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상당수의 문항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였다. 먼저 한국 교회의 사회적 활동 관련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두 그룹의 인식을 각각 물어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1>에서 보듯 7가지 항목 모두 평신도보다 목회자 그룹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 매일 살아야 하기에 그들의 인식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두 그룹간의 인식을 좁히는 것이 교회 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림1] 한국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항목별 평가(‘그렇다’ 비율) (%)



*자료출처 : 국민일보,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한 개신교인 및 목회자 여론조사', 2017.02.
(전국 평신도 900명, 목회자 1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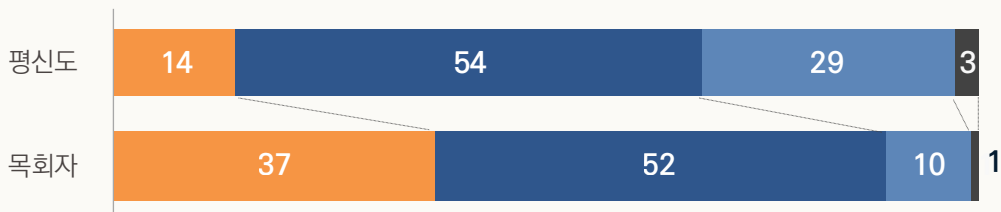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반드시 개혁 실천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했다(그림2).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권위주의/교권주의’를 1위(47%)로 지적한 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방향 제시’를 1위(41%)로 지적해 대조를 보였다.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다. 과거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통해 교회의 대형화를 이뤘던 시대를 뒤로 하고, 한국 교회에도 ‘탈권위주의, 탈교권주의’를 평신도들이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탈권위주의보다는 ‘성도들의 실제 생활의 방향 제시’가 더 큰 개혁 과제로 지적해 두 그룹간 인식의 갭이 큼을 알 수 있다.



*자료출처 : 국민일보,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한 개신교인 및 목회자 여론조사', 2017.02.

일반인과 비교하여 ‘개신교인의 윤리/도덕 수준’에 대한 평가(그림3)에서는 평신도들은 ‘일반인보다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보다 높은 반면, 목회자들은 반대로 ‘일반인보다 높다’는 응답이 더 높아,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일반인보다 성도들의 윤리의식이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따라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윤리의식 교육의 절실함을 갖기 어렵게 한다. 정작 성도들은 개신교인의 윤리의식이 교회 밖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림3] 한국 교회 개혁 실천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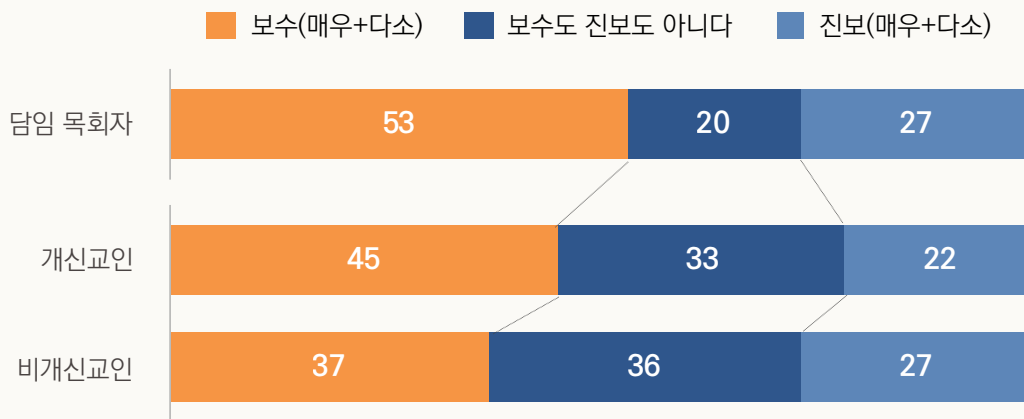


*자료출처 : 국민일보,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한 개신교인 및 목회자 여론조사', 2017.02.

이번에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희망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평신도 51%, 목회자 79%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에 대해서는 평신도 24%, 목회자 66%로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훨씬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정치적 이념과 관련해서도 서로 간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그림4). 목회자, 평신도, 비개신교인 세 집단을 비교해 보면,(한목협,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목회자 그룹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보수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 밖보다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4] 한국 교회 개혁 실천 과제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2017.11
(개신교/비개신교인 각 1,000명씩 2,000명, 담임 목회자 500명, 온라인/대면 면접 조사)

이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여러 측면에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영리 단체든 비영리 단체든 리더와 팔로워의 인식 차이를 좁혀야만 서로 호흡을 맞춰 함께 길을 갈 수 있다. 한국 교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있는데, 목회자와 평신도 간 인식의 간격을 좁히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노력이 한국 교회 개혁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대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 대표 지용근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재) CBS | 한용길 사장

(재) 한빛누리 | 김형국 이사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 김지철 이사장

(주)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 송인규 소장

MOU 기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문화선교연구원

후원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KB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문의: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